

# 계륵 된 외인타자... 보내느냐 마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 비하인드 베이스볼

### 동행? 교체? 감독들의 딜레마

올해 외인타자들 부진... 로사리오만 3할 히메네스·대니 돈 등 생존·퇴출 갈림길 에반스 부활 사례... 동행에 힘 실리기도

햄릿은 '죽느냐 사느냐! 그것이 문제로다'를 외쳤지만, 요즘 프로야구 감독들은 '보내느냐! 마느냐! 그것이 문제로다'를 외쳐야 할 판이다. 쓸모는 없으나 버리는 게 어려운 '계륵'으로 전락했으나 교체카드를 손쉽게 꺼내지 못하는 외인타자들 때문이다.

#### ●효자용병이었던 외국인타자

1998년 외국인선수 제도가 도입된 뒤 한국땅을 밟은 외국인선수들은 프로야구발전의 혁혁한 공을 세웠다. 웨이트트레이닝의 중요성을 알렸고 타격 기술, 구종과 같은 선진야구를 전파했다. 그러나 이제는 한국도 세계에서 인정받는 야구강국으로 거듭났다. 리그 수준이 올라가면서 웬만한 외인들은 와도 살아남기 힘든 상황이다. 아직까지 외국인투수에 대한 의존도는 높지만 외인타자들의 실력이 아주 떨어지지 않으면 두각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다. 올해는 특히 외국인 타자들의 활약이 저조하다. 기록으로도 드러난다. 현재 타격 10걸 안에 이름을 올린 외국인타자는 1명도 없다. 타율 3할을 기록 중인 용병도 한화 윌린 로사리오 1명이다. SK가 대니 위스 대신 영입한 새 외국인타자 제이미 로맥이 무시무시한 파워를 자랑하며 두각을 드러내고 있고, NC 재비어 스크릭스가 홈런, 타점에서 5결 안에 이름을 올리며 체면치레를 하고 있을 뿐이다. 이외에는 압도적인 외국인타자가 없다. kt 조니 모넬은 10개 구단 외국인타자 중 가장 먼저 짐을 싸고향으로 돌아갔다. LG 루이스 히메네스는 부진을 거듭하다가 부상으로 공백이 장기화하면서 퇴출과 생존 사이에서 위태로운 줄타기를 하고 있는 중이다. 대니 돈도 1군 엔트리에는 이름을 올리고 있지만 1할대 타율에 경기출전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 ●이제는 계륵으로까지 전락

'계륵'으로 전락한 외국인타자들을 보는 감독들의 마음은 복잡하기만 하다. 교체카드를 꺼내고 싶지만 로맥처럼 좋은 타자들을 데려온다는 보장이 없어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실제 kt는 모넬을 퇴출했지만 새로운 인물을 찾지 못해 2주 넘게 외인 한 자리가 공석이다. 벅센의 경우 대니 돈을 내보내고 싶어도 그러지 못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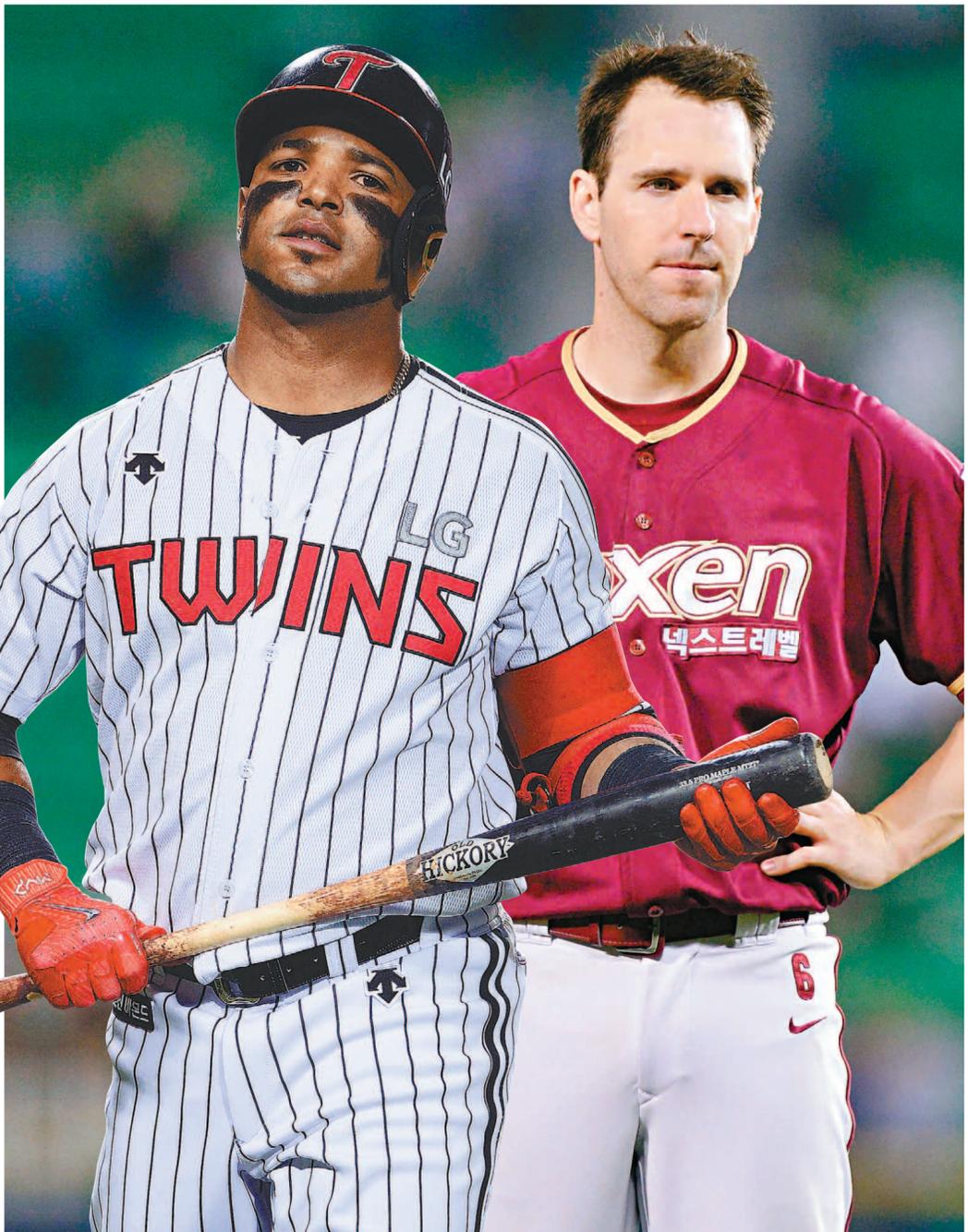
하는 팀 사정이 있다. 선 오설리반을 제이크 브리검으로 바꾸면서 2장의 교체카드 중 한 장을 썼는데, 앤디 밴헤켄의 몸 상태가 정상이 아니다. 마지막 한 장을 외국인타자 교체에 쓰기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두산 김태형 감독도 "외국인타자는 참 어려운 문제"라고 고개를 저었다. 김 감독은 "외국인투수는 그나마 상황이 낫다. 투구영상을 보면서 구위, 구종, 제구력 등을 평가할 수 있고 타자들과의 타이밍 싸움을 보면서 '통한다', '그리지 못한다'라는 판단이 서는데 외국인타자는 다르다"며 "커리어를 보면 분명히 잘 할 것 같은데 막상 시즌 돌입하면 이상을 벗어나는 타자들이 많다. 영상을 많이 본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SK 루크 스카트가 대표적이다. 스카트는 플로리다 스프링 캠프만 해도 정말 최고의 타자였는데 결국에는 성공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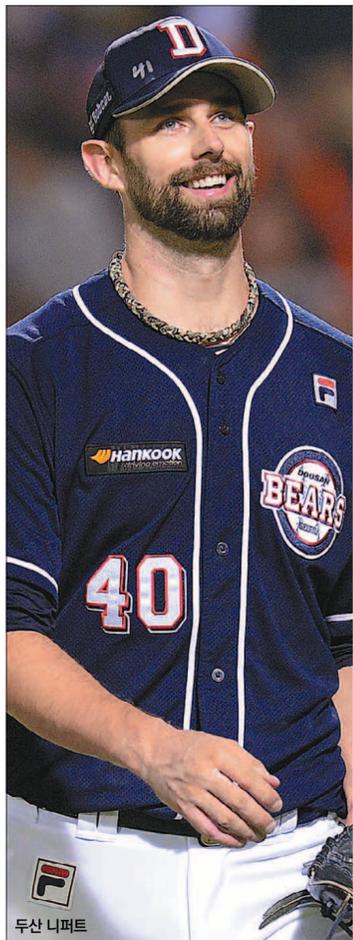
#### ●제2의 에반스 꿈꾸는 외인들, 그러나...

상황이 이렇다보니 감독들은 '병어리 냉가슴'을 앓으며 교체보다 동행하는 쪽을 선택한다. 올 시즌만 해도 롯데 앤디 번즈, KIA 로저 버나디나, 삼성 다린 러프 등이 초반 고전을 면치 못했지만 감독들은 인내하며 충분한 적응시간을 줬다. 이는 지난해 지독한 부진에 시달리다가 2군에 다녀온 뒤 제 모습을 되찾은 두산 닉 에반스의 사례가 있었기 때문이다. 현재 타격 10걸 안에 이름을 올린 외국인타자는 1명도 없다. 타율 3할을 기록 중인 용병도 한화 윌린 로사리오 1명이다. SK가 대니 위스 대신 영입한 새 외국인타자 제이미 로맥이 무시무시한 파워를 자랑하며 두각을 드러내고 있고, NC 재비어 스크릭스가 홈런, 타점에서 5결 안에 이름을 올리며 체면치레를 하고 있을 뿐이다. 이외에는 압도적인 외국인타자가 없다. kt 조니 모넬은 10개 구단 외국인타자 중 가장 먼저 짐을 싸고향으로 돌아갔다. LG 루이스 히메네스는 부진을 거듭하다가 부상으로 공백이 장기화하면서 퇴출과 생존 사이에서 위태로운 줄타기를 하고 있는 중이다. 대니 돈도 1군 엔트리에는 이름을 올리고 있지만 1할대 타율에 경기출전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러프를 기다려준 삼성 김한수 감독은 "러프를 교체하겠다고 생각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며 "타격폼을 조금 수정하긴 했지만 커리어가 굉장히 좋은 타자였고, 시즌이 한 달 정도밖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성급한 판단을 할 필요는 없다고 봤다. 컨디션이 올라오면 어느 정도 역할을 해줄 것이라고 믿었다"고 말했다. 물론 그렇다고 고민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만약 다시 1군으로 올라왔을 때 컨디션을 회복하지 못하면 그때는 결단을 내려야겠다고 마음을 먹었다. LG도 동병상련이다. 내부적으로 부진과 부상으로 허덕이는 히메네스를 교체해야 한다는 의견은 모아졌다. 그러나 LG 양상문 감독은 "히메네스의 치료를 지켜보며 새로운 선수도 찾았다. 순리대로 가려고 한다"는 말로 여지를 남겼다. 현재로서는 교체도, 동행도 결정하지 못하는 현실을 고스란히 담은 한 마디였다.



LG 히메네스(왼쪽)와 벅센 대니 돈은 퇴출의 위기에 처해있다. 하지만 감독들은 쉽게 내치지 못하고 있다. 대체 외국인 타자를 구하는 일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스포츠동아DB



두산 니퍼트

## 천정부지 외인 몸값...트라이아웃 도입 고려해야



### 조범현의 야구塾

선수 수급 원활·몸 관리 중요성 전파 등 외인 제도 20년 긍정 효과도 무시 못해

1998년은 KBO리그 역사의 흐름을 바꿔놓은 변혁기였다. 외국인선수 도입이라는 혁신적인 제도가 바로 그해 실시됐기 때문이다. 큰 키와 우람한 체구를 앞세운 '푸른 눈의 이방인들'이 미친 영향력은 적지 않았다. 외인 농사라는 말이 생겨날 정도로 팀에서 막대한 비중을 차지하게 됐고, 이전 전제판도를 쥔 주축전력으로 자리를 잡았다. 20년이 흐른 지금, 이들을 둘러싼 평가는 뚜렷하게 엇갈린다. KBO리그 질적 수준을 향상시켰다는 찬사도 있지만, 주전 2~3자리를 차지하면서 유망주들의 성장을 막았다는 비판 역시 공존한다. 여기에 이들의 몸값이 천정부지로 뛰고 있다는 점 역시 문제로 제기된다. 외인제도가 KBO리그에 남긴 유·무형의 효과와 앞으로 발전방향에 대해 야구 기자 2년차 고봉준 기자가 묻고, 조범현 전 감독이 답했다.

Q : KBO리그에 외국인선수가 들어온 지 벌써 20년이 흘렀습니다. 우선 이들이 처음 한국땅을 밟았을 당시 현장 반응이 궁금합니다. 찬반

양론이 팽팽했는데요. A : 우선 선수들은 동요가 조금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본인의 실재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반대하는 기류가 있었죠. 국내선수들에게 '생존'의 문제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나 당시 구단들과 KBO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KBO리그의 질적 향상은 물론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선 외인제도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당시엔 이미 프로축구와 프로농구에서 외인들이 들어온 뒤였습니다. 프로야구도 뒤쳐져선 안 된다는 분위기가 형성됐죠. Q : 그간 많은 외인들이 KBO리그에서 뚜렷한 족적을 남기기도 하고, 소리 없이 사라지기도 했습니다. 아직까지 뇌리에 남아있는 외인들이 있다면 누구일까요. A : 가장 기억에 남는 선수는 역시 KIA 감독 시절 데리고 있던 아킬리노 로페즈입니다. 2009년 통합우승 당시 일등공신이었죠. 로페즈는 무엇보다 실력면에서 귀감이 됐습니다. 선발 로테이션을 거치지 않았고, 한 번 나가면 긴 이닝을 소화했습니다. 여기에 승부근성까지 갖췄어요. 확실히 외국인선수라하면 부드러운 맛 보단 투지 넘치고 근성 있는 기질이 중요해보입니다. 이런 선수들이 기억에도 많이 남고요. 또 한 명은 SK에서 마무리로 활약했던 호세 카브레라이입니다. 제게 외인 운용법을 깨닫게 해줬던 선수였어요. 외국인투수는 경기에 많이 나가는 부분이 제일 중요하데 마무리를 외인으로 기용

하다보니 일주일 넘게 출장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더군요. 거금을 들여 데려왔음에도 게임 투입이 어려웠던 거죠. 결국 그 이후론 외국인투수를 마무리로 영입하는 일은 없었습니다. Q : 외국인선수는 타국에서 생활하는 만큼 일상적인 관리가 중요해보입니다. 지난 20년을 돌아보면 그라운드 안팎의 문제로 속을 썩었던 외인들이 종종 있었습니까. A : 하루는 아침부터 프런트에서 보고가 올라오더군요. 외인 한 명이 새벽까지 술을 마신 뒤 숙소 바람으로 아파트 복도에서 발견됐다고요. 감독 입장에서 한숨이 절로 나오죠. 이러한 경우는 저뿐만 아니라 모든 감독들이 경험했을 겁니다. 물론 외국인선수들이 한국 무대에 적응하기는 쉽지 않다는 사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지인도 없고, 정보가 미천한 타국에서 지내야 하니까요. 야구는 물론 한국문화 자체에 적응하기가 쉽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감독과 선수단은 물론 프런트에서도 관심을 더 기울여주고 싶습니다. 도와주려는 마음은 모두 같다고 할까요. 다만 사생활 관리에 계속 문제가 생기는 선수는 결국 퇴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Q : 그렇다면 외국인선수 제도가 KBO리그에 남긴 유·무형의 효과엔 무엇이 있을까요. A : 긍정적으로 평가하자면 우선 국내선수 내부에 미친 영향이 큼니다. 처음 제도가 도입됐을 당시 타이론 우즈, 펠릭스 호세, 댄 로마이어 등 엄청난 파워를 지닌 타자들이 득세했습니다.

당시 국내 야구계가 놀랄 정도였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웨이트 트레이닝을 비롯한 몸 관리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졌습니다. 술과 담배를 일절 자제했던 몇몇 외인타자들은 국내선수들을 아난치기도 했어요. 몸 관리 제대로 하려면 둘 모두 끊으라고요. 이와 더불어 수준 높은 외인들이 들어오면서 KBO리그 전체에 선수 수급이 원활해졌다는 측면도 있습니다. 덕분에 팬들께서 야구를 보는 즐거움이 늘어나게 됐죠. 또한 국내선수들이 외인들과 한 시즌, 두 시즌을 치러나가면서 국제경쟁력이 강화된 부분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Q : 그나마 제도 도입에 따른 비판적 시각 역시 존재하는 상황입니다. A :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몸값에 대해 할 말이 많습니다. 현재 대략 200만달러 터럭까지 뻗어 있는 몸값은 사실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현재 팀당 3명의 외국인선수를 보유하고 있는데 많게는 400~500만달러까지 지출하는 형편입니다. 경제상황 등을 고려할 때 너무나 적절치 못하죠.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트라이아웃을 심각하게 고려해야할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일정액 수를 상한선으로 두고 더블A~트리플A 선수들을 대상으로 트라이아웃을 실시한다면 질적 수준도 유지하고 몸값 문제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특정기준을 잡아도 한국에 오고 싶어할 선수는 많습니다. 물론 이 같은 논의는 구단과 KBO, 현장 야구인들이 머리를 맞대고 지속적으로 풀어나가야 합니다. 20년이 흐른 만큼 조금 더 깊이 있는 성찰과 방향 설정이 필요한 시점 이 바로 지금입니다.

정리 | 고봉준 기자 shutoul@donga.com